전북농협, 집중호우 피해 농가 '농심천심' 일손돕기

전북농협은 11일,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일원 농가를 찾아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날 현장에는 전북농협 임직원과 군산시 공무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해 가지 하우스와 배추 시설하우스의 토사 제거, 비닐 정비, 잔해물 처리 등 피해복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앞서 6일 군산 지역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농작물 침수와 시설하우스 파손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력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았다.

이에 전북농협은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으로 피해 농가를 돕는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농업인과의 신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JB희망의 학습멘토링' 후원금 전달

전은, 자립준비청년 30명 선발 · 8개월간 1:1 아동 학습 멘토 활동 지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11일,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아동 학습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5 'JB희망의 학습멘토링' 연간 지원사업 후원금 2억7천만 원 전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전주시 우범기 시장, 전주시복지재단 윤방섭 이사장,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김경환 관장,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과 오현권 부행장, 조인성 전주시청지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하며, 뜻깊은 후원의 의미를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JB금융그룹의 핵심 사회공헌사업으로, 학습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전문적인 학습 지도와 정서적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차게 성장하도록 돕는 한편, 보호 종료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전주시, 전주시복지재단,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 30명을 선발, 8개월간 방과후 1:1 아동 학습 멘토로 활동하도록 지원한다. 학습멘토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활동 기간 동안 매월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 우범기 시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당당히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전북은행과 지역사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뜻을 전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시 평화2동 주민자치위, 어르신 손잡이 설치

전주시 평화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양희주)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4세대를 대상으로 가정 내 안전바와 손잡이를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어르신들의 생활 동선을 직접 살펴 출입문, 화장실 등 자주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 설비를 설치하여 실제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받은 김모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여 집안에서 넘어질까 늘 걱정이었는데, 주요 동선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해주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전했다.

평화2동 주민자치위원회 양희주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사회 돌봄에 할께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생활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구천동농협 이태일 · 강점조 부부, 새농민 장관상 수상

구천동농협 조합원 이태일·강점조 부부가 제 60회 새농민상 본상(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 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상을 구천동농협 임직원들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했다.

새농민상 본상은 전국의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 중 매년 20여 부부를 선발·시상하는 최고의 농업인 상이다.

이러한 농업·농촌·농협에 관한 열정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본상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해경,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지난 10일 청사 4층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함께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검소하게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국민 안전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온 해양경찰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 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으로 기획운영과 심정보 경감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수상과 총 4명의 직원이 업무 유공자로서 표창장을 받았다.

이어 민간 부문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종대 사무국장이 해양수산부 장관 감사장 수상과 5명이 유공을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박생덕 서장은 해양경찰청장의 축사 대독으로 "해양의 치안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하신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면서 "부안해양경찰은 올 한 해 큰 사건·사고 없이 순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바다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해양수호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의 날을 통해 다져진 의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안전 문화 확산과 해양주권 수호에 지속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교대-전북대 사범대, 학술교류 세미나 성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10일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전북대학교 사범대학과 공동으로 '2025 유·초·중등 연계 학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교원의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세미나에는 예비 초·중등교사, 현장 교원, 상담·교육 관련 전문가, 양 대학 교직원 및 재학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 도통동, 작업자 안전 강화 나서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을 앞두고 관내에 투입될 인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작업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안전수칙, 올바른 예초기 사용법, 응급 상황 시 대처 요령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재철 도통동장은 "제초작업은 단순한 환경정비를 넘어 주민과 귀성객 모두의 안전과 만족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죽항동, 다문화가족 등 대상 '집중 방문의 달' 운영

남원시 죽항동 행정복지센터는 9월 한 달간 관내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집중 방문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고령세대 중심이던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이번 달에는 젊은 한부모·다문화가족까지 확대해 직접 찾아가 소통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며, 평소 방문을 꺼리거나 도움 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발굴해 숨은 위기가구 찾아내기에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한부모·다문화가족의 자녀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국가정책을 안내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임점숙 죽항동장은 "앞으로는 고령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까지 살피는 복지스시템을 구축하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축협, 조합원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

남원축협(조합장 한경석)은 11일, 축산농가(조합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이라는 주제로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축산농가와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석, 최근 다양해진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과 피해사례, 대응 요령 등을 소개하며 금융사기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경석 조합장은 "금융사기 방법과 수단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금융사기 예방 및 대처법을 공유,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경찰 등,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11일 2학기 개학에 맞춰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날 김제경찰서는 김제중앙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와 함께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학부모와 교통안전 봉사단체 회원들이 참여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 및 정지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개학 이후 통학로 주변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시설 점검을 병행하는 등 실질적인 교통안전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승준 김제경찰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라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기전대, 서천군과 창업지원사업 경진대회 성료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서천군과 함께 추진한 'RESTART & 도약 창업지원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서천군 내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60시간의 창업교육 과정으로 진행, 9월 9일 서천군에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설기정원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 외에도 △3단 폴딩 인라인 스케이트 △서천 특산품을 활용한 초콜릿 △공예 분야 온라인 플랫폼 △독립서점 & 수제문구점 △한산 모시 굿즈 △서천 특산물 디자인 소품 △친환경 수산물 기반 펫푸드 등 참신한 창업 아이템들이 소개돼 현장의 관심을 모았다. /장은성 기자

정석등대, 비전대 미용건강과에 발전기금 기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최근 (사)정석등대로부터 미용건강과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 3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정석등대를 이끌고 있는 김용현 대표는 "평소 미용 분야와 유학생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미용 인재들이 성장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용건강과 김은영 교수는 "(사)정석등대가 학생들을 위해 뜻깊은 마음을 나눠줘 감사하다"며 "이번 기탁으로 국내외 미용 산업 전반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니어클럽, 행복한 동행 문화활동 진행

남원시니어클럽(관장 김현성)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 참조은웨딩컨벤션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노인 1,869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동행 문화활동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사업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사기 진작과 참여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뷔페 형식의 점심 식사가 제공되고 흥겨운 타악공연팀 '아뤼'의 공연이 무대를 채워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시니어클럽은 올해 37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운영,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